

화순군, 지역소멸 대응 청년정책 올인

만원 주택 확대·청년하우스 건립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사업 등 추진

화순군이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운영을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청년 정책에 맞추고 관련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화순군은 민선 8기 들어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 환경 조성을 위해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결혼장려금, 출산·양육 지원금 등 저출산 대안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후반기에도 만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

춘 신작로 활성화사업과 청년하우스 건립,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춘 신작로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청춘 신작로 일대에서 매주 다양한 길거리 공연 등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연무대를 제공하고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하우스는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일원에 총사업비 31억9600만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오는 8월부터 청년들의 취업 지원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매년 18~49살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무주택자 50가구를 선정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실 납입액(월 최대 25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사업을 통해 중·고생 각각 20명을 공개 선발하고 방학 중 해외 문화 체험 연수비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구북구 화순군은 “화순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이 잘사는 화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와 보육, 교육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확대해 인구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장성군이 최근 연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 참가자들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강연을 듣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임신·출산·육아 걱정 뚫...장성군, 임산부 교육

11월까지 건강교실·수유클리닉 등

장성군이 오는 11월까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교육·행사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성군 보건소가 마련한 임산부 교육은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 ‘모유 수유 클리닉’ ‘임산부·영유아 가정 숲 힐링 캠프’ 등이 있다.

숲 힐링 캠프는 장성군과 협약을 맺은 국립장성숲체원이 함께 한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가족센터, 장성혜원병원과 ‘임산부 건강 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유로

운 질의응답 분위기를 위해 지역 커피 전문점에서 수업을 열었다. 맞춤형·직장인 부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후 7시에 수업을 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강연자로 나서 ‘임신·출산·육아의 모든 것’을 주제로 건강 교실을 진행했다. 강연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기본 정보부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별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임신·출산 가정 관련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1-390-8387)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난 여름 나주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금성산 계곡형 ‘생태물놀이장’서 무더위 썩~

24일 개장...태풍·집중호우시 휴무

나주의 명산 금성산에 자리 잡은 생태물놀이장이 오는 24일 문을 연다.

나주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물놀이장은 올해부터 민간 위탁 운영하면서 유료화(1인당 2000원)를 시작한다. 총 125면 규모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태풍이

나 집중 호우 발생 때는 휴무한다.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은 금성산 자락에 약 1만㎡ 규모로 조성됐다. 나뭇데굴 데굴 수 있는 3개의 물놀이장과 갑판 쉼터, 물 미끄럼틀, 목욕장, 매점 등을 갖췄다. 금성산 정상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을 사방댐에 받아 자연 계곡형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나주시는 수질과 편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다. 물놀이장에는 안전 요원과 상비약, 제세동기 등 응

급구호 물품도 상시 배치한다.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인근에는 국립나주숲체원이 있다. 숲체원은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산림 숙박시설(26실)과 다양한 산림치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나주의 진산 금성산에서 물놀이로 무더위를 이기고 일상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수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8월 10일부터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총 10회 개최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8월10일 시마노프 두족류 선상낚시대예선전 시리즈1, 8월12일 해마 요팅캡 감성돔 선상낚시대예선전 시리즈1를 시작으로 총 10회 대회를 개최한다.

15일 감성돔 낚시대예 접수가 시작됐으며 18일부터 두족류 낚시대예를 접수한다.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감성돔은 20

족류는 300명까지 접수한다.

참가비는 감성돔은 15만원, 두족류는 12만원으로 2024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http://www.mastersmngm.com)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으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참가비를 입금해야 한다.

대회 순위는 무게 계측으로 가장 많은 무게를 잡은 순서로 결정되며 동일한 무게 때는 1순위는 길이, 2순위는 참가 접수순으로 결정된다.

예선시리즈 참가자 전원 대회 모자를 지급하며

우승자에게는 시상금 200만원, 2등 100만원, 3등 70만원, 4등 50만원, 5등 30만원이 지급된다.

9월에 한 차례 더 예선전 시리즈2를 개최하며 예선 시리즈의 상위 50%를 대상으로 본선을 치른다. 본선 1등 우승자에게는 감성돔은 3000만원, 두족류는 1500만원, 박계일 1000만원 상금을 지급하며 2~50등에게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회기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량 일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농협 발전 상생협의회 위원 24명이 최근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 함평군지부 제공>

함평군 농협 발전 상생협의회... 새 농업 구현 앞장

중앙회·지역 농축협 등 24명 구성

함평지역 농협들이 ‘농협 발전 상생협의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농협 함평군지부는 최근 범농협 상생·발전을 위한 ‘2024년 함평군 농협 발전 상생협의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함평군 농협 발전 상생협의회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농협 조직의 소통 문화를 키우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고자 협의회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을 주제로, 계통조직 간 소통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기영운 농협 구례교육원 원장이 강단에 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했다.

상생협의회는 조직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계통 간 하나 되기 실천 과제 발굴·세부 실천 방안 모색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검토 ▲농정 활동 협력 추진사업 발굴 등을 다뤄기로 했다.

이광재 농협 함평군지부장은 “범농협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